

	<b>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길기 소장
		일시	2024. 9.

## CEPA Insight

- 세계은행, 베트남 경제성장률 5.5→6.1% 상향조정
-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하노이 협력센터 준공
- 쇼피,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1위 '독주'...점유율 71.4%

### ■ 세계은행, 베트남 경제성장률 5.5→6.1% 상향조정

- 세계은행(WB)이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1%로 이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상향조정했다.
- 세계은행은 26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5.5%에서 6.1%로 올렸다.
- 세계은행은 "세계경제가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회복되며 성장이 가속화되는 등 위기에 대한 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2분기 6.9%, 상반기 6.4%를 각각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통계총국보고서 기반으로 상반기 수출입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16.9%, 17% 증가하고, 투자와 소비가 각각 6.7%, 5.8% 늘었다고 분석했다.
- 글로벌 수요 반등은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및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분석·검토한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6.0~6.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 현재 세계은행 외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싱가포르 UOB, 스탠다드차타드(SC) 등 많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다. HSBC는 지난달 전망치를 종전 6%에서 6.5%로 상향했다.

- 그러나 세계은행은 "신용대출은 수요가 저조하여 큰 폭의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현재까지 베트남 경제회복 속도는 코로나19 이전 성장 국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상반기 부실채권 비율은 4.56%로 지난 2022년말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이와 함께 세계은행은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 중국의 내수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내년부터 베트남의 교역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세계은행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는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4.5%에서 향후 2년간 4%, 3.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DP대비 정부부채 및 국채비율은 올해 35.7%, 내년 35%로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2>

## ■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하노이 협력센터 준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3일 베트남 하노이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협력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국토부-베트남건설부의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 모두 74억9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20년 6월 착공된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시범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센터 준공에 따라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촉진과 양국 간 스마트 시티 분야 실질적 협력 본격화가 기대된다. 협력센터는 국내 건설·IT산업의 베트남진출 거점 역할도 하게된다.
-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으로 국토교통분야 ODA가 활발하다”며 “향후 국토교통ODA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등 주택도시개발·공항·철도 등 우리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2>

## ■ 쇼피,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1위 '독주'...점유율 71.4%

-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가 베트남시장에서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소셜테크기업 유넷ECI(Younet ECI)의 '2분기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쇼피와 틱톡숍(Tiktok Shop), 라자다(Lazada), 티키(Tiki) 등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GMV(총거래액)은 87조3700억동(34억7723만여달러)으로 전 분기 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플랫폼별로는 쇼피의 GMV가 62조3800억동(24억8266만여달러, 71.4%)으로 선두를 유지했고, 틱톡숍이 19조2400억동(7억6573만여달러, 22%)으로 2위로 뒤를 이었다. 라자다와 티키는 각각 5.9%, 0.7%를 차지했다.
- 1분기 전체 시장의 91.3%를 차지했던 쇼피와 틱톡숍 등 상위2대 플랫폼의 점유율이 2분기 93.4%까지 확대되며 2강체제가 심화되는 모습이 관측됐으나,

실제 점유율을 늘린 플랫폼은 쇼피가 유일했다.

- 쇼피는 지난 1분기에도 틱톡숍(4.8%)보다 높은 GMV증가율(16%)을 기록하며 점유율을 3.5%포인트 늘린 바있다.
- 틱톡숍은 출시이후 짧은 시간 라자다, 티키를 제치고 2위로 급부상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쇼피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틱톡숍의 매출이 주로 패션·액세서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틱톡숍은 패션·액세서리 부문에서 GMV기준 전체의 37.5% 점유율을 기록 중인 반면, 쇼피는 24%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2분기 틱톡숍의 부진은 1분기 텃(Tet 설)연휴 급증했던 패션아이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 이중 쇼피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숏폼(짧은 동영상)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쇼퍼테인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를 구현해내고 있으며, 틱톡숍도 이에 질세라 셀러들 라이브커머스를 지원, 세션당 수천억동의 매출을 올리며 쇼피를 뒤쫓고 있다.
- 특히 지난 6월 쇼피는 외부 행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대대적인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매출 33조8000억동(13억4520만달러)으로 올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 밖에도 쇼피는 지난 3월 상품 수령후 15일내 반품허용 조치 시행에 이어 6월에는 배송중 구매취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험하는 등 셀러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친화 정책을 지속하며 고객층을 늘려가고 있다.
-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은 인상적인 성장세와 함께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입점업체별 평균매출은 전분기대비 9%, 상품별 평균단가는 7% 상승한 반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셀러도 2만6000명에 달했다.

- 이에 대해 유넷은 “시장은 점점 세분화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셀러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응웬 프엉 림(Nguyen Phuong Lam) 유넷 시장조사국장은 “수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기만 하면 됐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브랜드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춰야하며,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 수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그는 향후 3~5년간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성장의 3대 핵심요소로 ▲온라인 소비습관 ▲고가품 구매 ▲쇼퍼테인먼트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20>